

# 광주·전남 변호사 업계도 '지방소멸시대'

### 올해 로스쿨 졸업생 중 광주변호사회 등록 '2명' 그쳐 '변시 114명 합격' 전남대 로스쿨, 수도권 출신 80% 지역시장 포화...기업·공공기관 몰린 수도권행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업계도 지방 소멸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법률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변호사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일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올해 '준회원'으로 등록된 신규 변호사는 2명 뿐이다. 이들은 일정기간(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광주지방변호사회에 30명 가까운 신규 변호사들이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왔으나 올해는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의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

다. 지난 2019년 637명이었던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이 664명(2020년) → 688명(2021년) → 712명(2022년) → 736명(2023년) → 738명(2024년 5월 현재)으로 정체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수도권 이탈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전남대 로스쿨 학생의 80% 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교육부의 '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현황'을 보면 전남대는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지난 2019년 76.38%, 2020년 75.41%, 2021년 77.59%, 2022년 74.05%, 2023년 82.40%로 5년 평균 77.16%에 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은 각각 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변동 현황 (단위:명)

	개업 회원						휴업 회원	미개업 회원	총원
	광주	순천	목포	해남	장흥	소계			
2019년	398	73	30	6	2	509	100	28	637
2020년	427	73	28	6	4	538	104	22	664
2021년	440	78	28	6	4	556	111	21	688
2022년	458	78	30	7	4	577	116	19	712
2023년	489	78	32	6	4	609	105	22	736
2024년 5.1 현재	483	78	33	6	4	604	112	22	738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위 '스카이(SKY)' 출신이 95%이상으로 채워졌으며 나머지 5%는 경찰대, 카이스트 등 특수대학 출신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달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보면, 전남대 로스쿨은 합격자 114명으로 서울대 로스쿨 162명, 고려대 로스쿨 121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산술적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 숫자가 늘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결국 자격증을 획득한 신규 변호사들은 자신의 출신지로 빠져 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15%) 이상 선발토록한 로스쿨 지역인재 할당제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를 뽑는 것도 권고 사항일 뿐이며, 지역 인재 의무 할당제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서 지역인재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 사이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역 인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학부 때부터 법조계를 희망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 로펌의 고숙성장과 법조계 인력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법조계 인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주요 법률 소비자인 기업을 비롯한 정치·경제력이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변호사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

는 네트워크 로펌에서 광고를 통한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대규모로 인력을 모집하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경제·문화·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가 집중되고 소송이 수도권 쪽에 몰리다 보니 지역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연고가 있는 변호사들은 지방개업을 모험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수도권으로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방 변호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송무업무 이외를 선호하는 변호사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몰리고 있는데, 기업과 공공기관조차 수도권에 몰리고 있어 결국 신규 변호사들은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젊은 신규 변호사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부터 혼인과 향후 경력까지 고민하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역 간 법률서비스 격차가 커지기 전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하철공사장 화재 2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광주농협 인근 지하철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출동한 소방에 의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소방대원들이 공사장 주변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장휘국 전 교육감, 시교육청서 강의한 까닭은

### 이정선 광주교육감 간곡한 요청에 '호남 의병' 주제 직장교육

장휘국(사진) 전 광주시교육감이 이례적으로 강사로 나서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 본청 대회의실에서 장휘국 전 교육감을 초청해 '의로운 사람들: 항일 의병 이야기'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장 전 교육감은 이정선 교육감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강단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동안 광주교육을 이끌었던 장 전 교육감은 퇴임 후에도 평소 항일 호남 의병, 독도문제 등 역사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는 강의에 앞서 "이 교육감의 제안을 받고 망설였다. 전임 교육감으로서 강사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교직원들이 뚜렷한 역사관을 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강의를 수락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강의에서 항일 호남의병 정신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호남의병의 역사적 배경, 주요 전투, 숭고한 정신 등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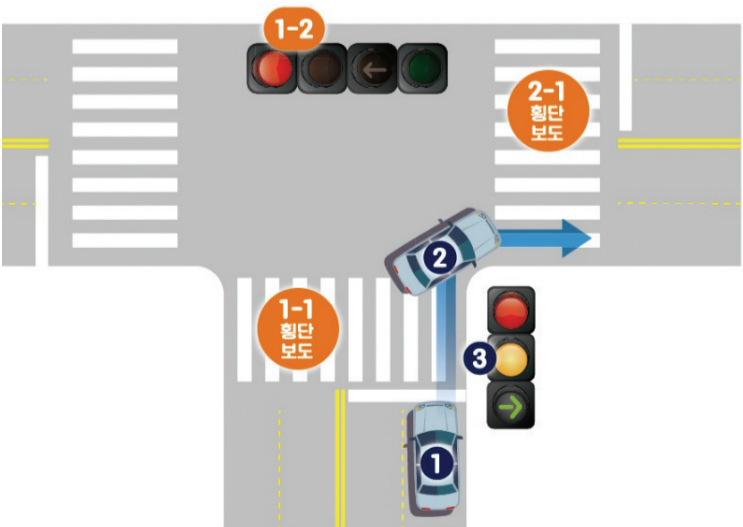
이 교육감은 강의를 들다 라디오 생방송 출연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부교육감 등 주요 간부와 직원들은 끝까지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전임자의 경험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앞으로도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전임자를 모실 것"이라며 "초청에 응해 주시고 좋은 강의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행 1년 '우회전 일시정지' 아직도 헛갈려요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 정지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 교차로 위반 행위·보행자 안전 위협 '여전' 광주경찰, 5·6월 집중 계도·단속 나서기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차량 우회전 방법이 변경됐지만 운전자들이 아직도 헛갈려해 경찰이 집중 계도·단속을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에 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하지만 교차로 위반행위가 여전히 발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광주경찰은 5-6월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와 시장 등지에 대한 집중단속 및 무단 횡단 보행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우회전 운전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검토 및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광주경찰청 제공>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농지이양 은퇴직불

## 2023년 11월 1일부터 신청·접수

### 지원내용

#### 매도

① 농지 매도 대금

② 직불금 매월 50만원/ha

\*최대 200만원(4ha)기준

#### 매도 조산부 임대

① 농지연금 매월 최대 300만원

② 농지 임대료

③ 직불금 매월 40만원/ha

\*최대 160만원(4ha)기준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

### 가입요건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65세 ~ 79세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전농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전농지역 농지

###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